

미국 실업수당 청구: 신규·계속 청구 동반 감소, 노동시장 견조해 추가 인상 판단에 힘 실어

2026.09.18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한 줄 요약

이번 주간 실업수당 지표는 해고 감소와 재취업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며, 연준의 추가 긴축 판단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나왔다.

9월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 상승률 3.3%를 근거로 12대0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3.75~4.00%로 올렸고, 경제전망요약(SEP)은 근원 물가의 2% 복귀 시점을 2029년 이후로 늦춰 잡았다.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 국면에서는 노동시장이 식어야 임금·물가 완화 경로가 열리는데, 이번 실업수당 지표는 그 경로가 이번에도 열리지 않았음을 확인시킨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9만 6000건으로 전주 대비 1만 건 감소했고 4주 평균도 20만 3250건으로 2750건 줄었다. 재취업을 보여주는 계속 청구건수(9월 5일 주간)는 173만 건으로 3만 9000건 줄었고, 계속 청구 4주 평균은 176만 1250건으로 1만 6500건 감소했으며 보험실업률은 1.1%로 0.1%포인트 낮아졌다. 해고측과 재취업측이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것이다. 이 개선은 통계 착시로 보기 어렵다. 신규 청구와 그 4주 평균은 전주 기준치(20만 6000건)가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순수한 변화이고, 계속 청구의 전주 기준치는 오히려 5000건 하향 수정돼 이번 감소폭을 부풀리기는 커녕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계절조정을 걷어낸 원계열에서도 신규 청구는 13.9% 줄어 계절적으로 예상된 감소폭(9.3%)을 웃돌았고, 계속 청구 원계열 역시 5.6% 줄어 예상치(3.5%)를 넘어섰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신규 청구는 23만 3000건에서 19만 6000건으로, 계속 청구는 192만 5000건에서 173만 건으로 낮아져 일회성이 아닌 수준 자체의 하락으로 읽힌다. 다만 지역별로는 방향이 엇갈린다. 미시간(제조업 해고 증가)·캘리포니아·워싱턴 등은 청구가 늘었고, 뉴욕·켄터키 등의 큰 감소가 이를 상쇄하며 총계를 끌어내렸다.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 국면에서 노동시장이 식지 않고 있다는 이번 확인은 매파적 악재로 판정된다. 연방기금선물 시장이 10월 28일 회의 추가 인상 확률을 52%, 12월 9일 회의는 90%로 반영하고 인하 가능성은 0%로 보는 구도에서, 해고·재취업이 동반 견조한 이번 결과는 이 프라이싱을 되돌릴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번 지표는 연준의 추가 인상 논거를 약화시키기는 커녕 뒷받침하는 쪽에 가깝다. 다만 이 판정은 노동시장 냉각을 통한 물가 완화 경로가 열리지 않았다는 데까지이며, 임금·단위노동비용·실제 물가로 이어지는 연쇄까지 이번 주간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신규 청구 4 주 평균이 다시 20 만 6000 건을 웃도는지, 계속 청구가 전주 기준치(176 만 9000 건) 위로 되돌아가고 4 주 평균(176 만 1250 건)도 함께 반등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미시간의 제조업 해고 증가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지, 채용 동향을 직접 보여주는 구인·이직 통계와 고용보고서 순고용이 이번 흐름과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10 월 28 일 FOMC 를 앞두고 이번 지표는 접전 중인 인상 확률을 인상 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소재다.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9-17 (이번)	9 월 둘째 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지표는 해고와 재취업 두 축이 함께 개선되며,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추가 금리 인상의 근거로 삼은 인플레이션 압력 국면을 다시 한번 뒷받침했다.
2026-09-10	9 월 5 일로 끝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0 만 6 천 건으로 발표되며 해고 측 지표와 재취업 측 지표가 모두 역사적 저위권에서 유지됐고, 이는 노동시장 냉각을 통한 임금·물가 완화 경로가 아직 열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하며 현재의 긴축 유지 기조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읽힌다.
2026-09-03	8 월 29 일로 끝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0 만 6 천 건으로 늘면서 몇 주간 이어지던 해고 감소 흐름이 멈췄다. 다만 증가폭은 저위권 안에서의 미세한 진동 수준에 그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배하는 현재 시장 국면에서 정책 판단을 흔들 만한 신호는 아니다.
2026-08-27	8 월 22 일로 끝난 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 만 3 천 건으로 전주보다 4 천 건 줄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해고 경로에서 노동시장이 느슨해지는 신호는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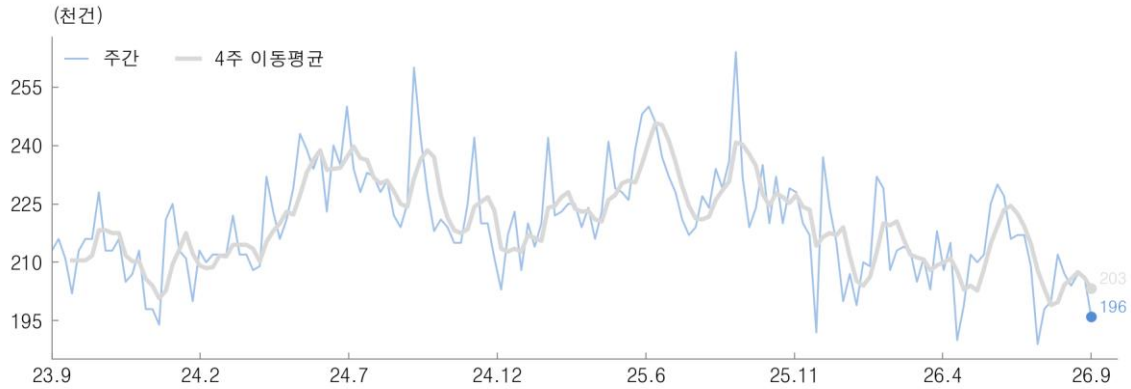
신규·계속 실업수당 청구 동반 개선

지표	이번	이전	변화	맥락
신규청구(계절조정, 9/12 주)	19 만 6,000 건	20 만 6,000 건	-1 만 건	해고 둔화, 전주치 미수정 상태의 순수 감소
신규청구 4 주 평균(계절조정)	20 만 3,250 건	20 만 6,000 건	-2,750 건	단주 노이즈 제거한 추세도 하락
계속청구(계절조정, 9/5 주)	173 만 건	176 만 9,000 건(수정치)	-3 만 9,000 건	재취업 개선, 전주치 5,000 건 하향수정돼 감소폭 오히려 축소
계속청구 4 주 평균(계절조정)	176 만 1,250 건	177 만 7,750 건	-1 만 6,500 건	재취업 흐름 완만히 개선
보험실업률(계절조정)	1.1%	1.2%	-0.1%p	피보험 고용자 1 억 5,373 만 2,307 명 대비 수급 비율 하락
신규청구(원계열, 미조정)	15 만 2,286 건	17 만 6,916 건	-13.9%(계절요인 예상 - 9.3%)	계절성만으로 설명 안 되는 추가 감소
계속청구(원계열, 미조정)	157 만 7,344 건	167 만 1,605 건	-5.6%(계절요인 예상 - 3.5%)	계절성만으로 설명 안 되는 추가 감소
전년 동기 대비(신규·계속청구, 계절조정)	신규 19 만 6,000 건 / 계속 173 만 건	신규 23 만 3,000 건 / 계속 192 만 5,000 건	신규 -3 만 7,000 건 / 계속 -19 만 5,000 건	단일 주 노이즈가 아닌 수준 자체 하락

핵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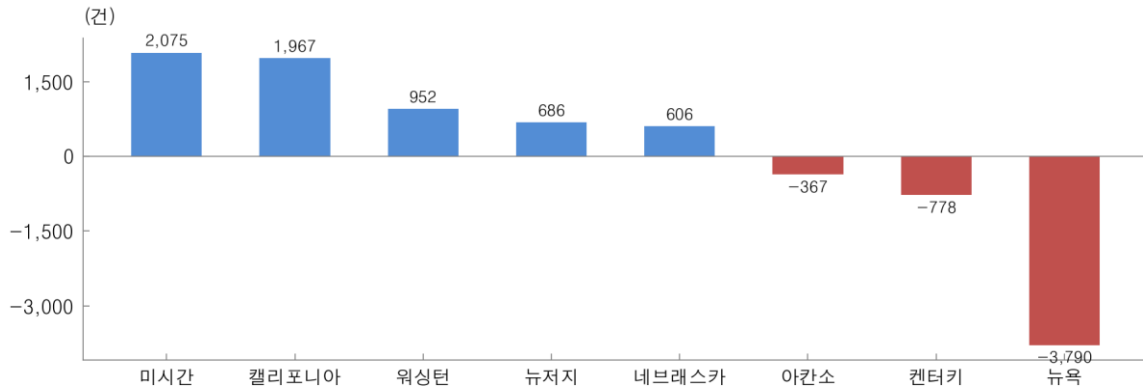
지표	값
4 주 이동평균(건)	203250
전주대비(건)	-10000
계속 실업청구(건)	1730000
신규 실업청구(건)	19600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주간) 3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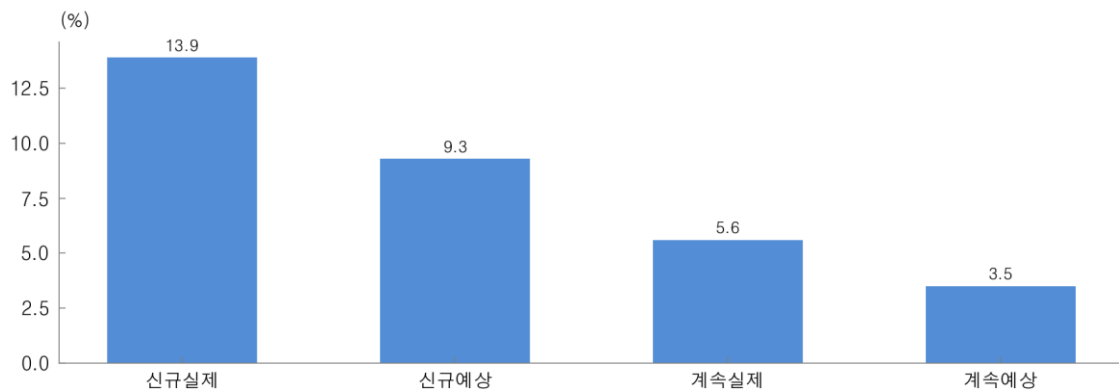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지역별 신규실업수당 청구 증감(주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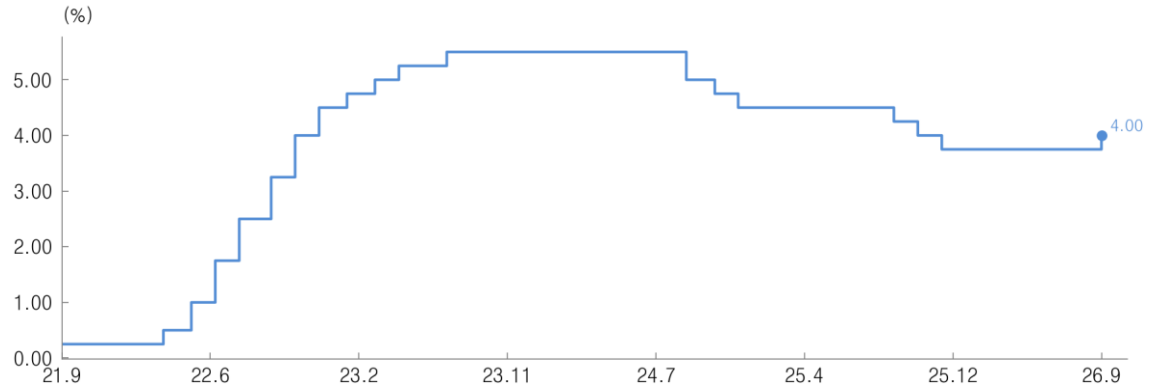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계절조정 전 감소율: 실제 vs 계절요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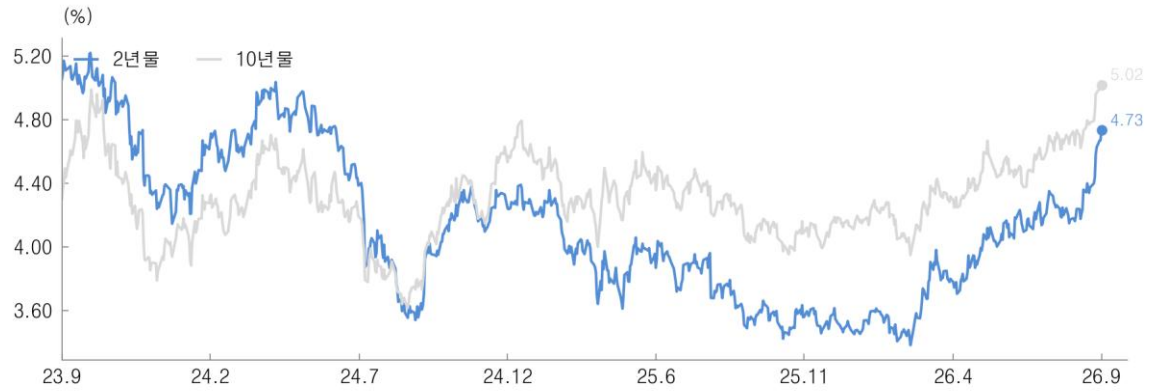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정책금리(연방기금 목표 상단) 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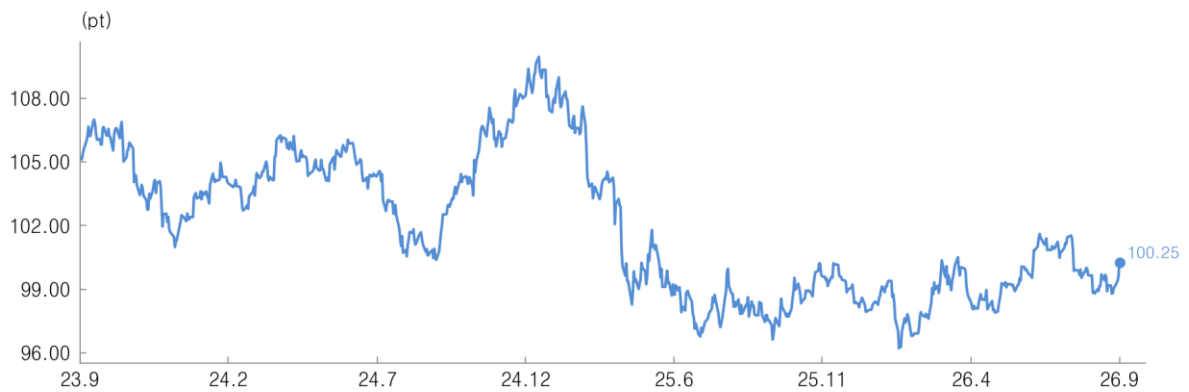
자료: CEIC(2026-09-17 기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 년·10 년)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